

ITU 내 청소년 참여활동 (ITU's Engagement with Youth)

청소년들은 열정적으로 정보통신기술(ICT)를 이용해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혁신을 이루고,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, 그 세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들의 위치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크게 성장해 ICT의 참여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.

오늘날 청소년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인터넷 사용과 가장 낮은 디지털 문맹률을 자랑합니다. 25 세 미만 청소년들은 전세계인구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2.8%를 차지하지만, ITU 는 이들이 2012 년 초기까지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의 45%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합니다. 반면 25 세 미만 청소년 64%에 달하는 17 억 3 천만 명은 아직도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

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청년층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, 이들은 바로 ICT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 사용 경험 5 년 이상의 15-24 세의 “디지털 원주민(digital natives)”들은 전세계 청년층의 30%를 차지합니다.

선진국에서는 15-24 세 청년층 80%가 디지털 원주민으로 분류되며, UN 정보통신기술 전문 기구인 ITU 와 UN 은 청년층이 정보격차 해소와 포용적 정보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ITU 의 활동

ITU 는 청년들이 어디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ICT 의 청소년을 위한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ITU 는 디지털 통합(모든 곳에 온라인 연결을 제공), 혁신(ITU 와 UN 에 청년층의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하기), 연구 및 분석 분야 등 주요 세 개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서 청년층과 소통하고 있습니다.

ITU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행사 개최

BYND2015 Summit: 2013 년 9 월, ITU 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청년과 ICT 에 관한 BYND2015 글로벌서밋 공동 주최를 통해 전세계 청년층이 포스트 2015 시대 지속가능개발 아젠다에 관해 의논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현장 참여와 특별 제작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를 통해 3500 명 이상 청년들이 참여하여 멀티미디어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고, 이 초안은 후에 2013 년 9 월에 열린 제 69 차 UN 총회에서 발표됐습니다. 이 선언문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사회·정치·경제 분야 권리 증진에 필요한 정보·지식 공유 틀에 관한 청년층 접근 장벽을 낮춰줄 것을 ITU 회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. 이 행사와 클라우드소싱 이니셔티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http://www.itu.int/bynd2015>

Ferney 모의 UN 회의 (FerMUN): ITU 제네바 본부는 2013 년 1 월 9 일을 처음 모의 UN 프로그램(FerMUN, 프랑스 페르네이-볼테르(Ferney-Voltaire)지역 Lycée International 이 운영)의 주최자로서 유럽 전역 학생 약 350 명을 맞이했습니다. 개발, 평화, 번영을 이루는 ICT 라는 주제로 학생들은 사이버테러리즘, e-농업, 세계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와 ‘인터넷 접근이 인권으로 고려돼야 하는가’를 논의했습니다. 첫 행사의 성공으로 FerMUN 은 이제 ITU 제네바 본부에서 매년 개최되며 2015 년에는 전세계 650 여명의 학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Girls in ICT Day: 2010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출범한 Girls in ICT Day 는 ICT 분야 경력을 쌓고자 하는 십대 여학생들 및 젊은 여성들의 인식 제고와 이들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. 지금까지 121 개 국가에서 취업 박람회, Open days, 멘토링 프로그램 등 약 2700 개의 행사가 열렸으며, 7 만 명 이상의 십대 여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.

디지털 통합과 혁신

온라인 아동 보호 (COP): ITU 는 아동 및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보안이 디지털 시대에 필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 2008 년 시작된 다자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인 COP 는 온라인상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해 법적 조치, 기술·절차적 조치, 조직 구조, 역량 강화, 국제 협력 등 5 가지 핵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ITU 는 파트너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, 교육자, 산업계,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침을 개발했습니다.

Young Innovators Programme: 2011 년 ITU 텔레콤월드 행사에서 출범한 Young Innovators Programme 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전세계 혁신적인 청년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. 매년 **Young Innovators Competition** 은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 재능 많은 청년들이 Young Innovators Programme 참여하는 기회를 얻도록 경쟁의 장을 제공하며,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신생기업 두 곳은 투자금 10,000 US 달러를 받게 됩니다.

Connect a School, Connect a Community: ITU 가 구축한 민관 파트너십인 Connect a School, Connect a Community 는 전세계 개발도상국 학교들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을 촉진하고, 학교의 인터넷 연결을 활용해 전 지역사회에 온라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UN 포스트 2015 개발 아젠다를 위한 청년 우선순위 크라우드소싱: ITU 는 UN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와 다른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포스트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크라우드소싱했습니다. 정부간 협상에 의견으로 제시된 **Global Youth Call** 정책문서 역시 이 크라우드소싱의 결과물입니다.

연구 및 분석

ITU의 2013 정보사회측정([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](#)) 발표에는 세계 디지털 원주민 측정에 중점을 두고 청년층 ICT 이용에 관한 첫 심층분석을 포함시켰습니다.

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개발도상국 내 인터넷 이용 15-25 세 비율은 다른 세대들의 두 배 이상.

개발도상국 디지털 원주민 수는 2017년까지 두 배로 될 것으로 예상.

디지털 원주민은 세계 인구의 5.2%에 불과 (즉, 전세계 3억 6300만 명)

ITU의 2014 보고서 '디지털 기회: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혁신 ICT 솔루션([Digital Opportunities: Innovative ICT Solutions for Youth Employment](#))'은 디지털 관련 직업과 창업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 보고서는 컴퓨터 활용능력, 웹 활용능력 등 21세기 직장 환경에서 훌륭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테크놀로지를 보여주고 차별화합니다.

UN의 활동

ITU는 UN의 '청소년 발달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(IANYD)'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. IANYD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UN기관을 위한 조정 및 보고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. IANYD 회원들은 UN의 전략 프레임워크인 동시에 UN체계 중심의 청소년 개발 행동계획([UN System-wide Action Plan for Youth Development](#))에 기여해 왔습니다. ITU는 청년과 포스트 2015 아젠다에 관한 하부 조직의 실무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, 이 실무반은 위에 설명된 클라우드소싱과 같은 온라인 툴을 활용해 현재 진행중인 회원국 협상에 청년층의 시각을 제공합니다